

LG産電(株), 전기각도 절단기 개발

LG産電(株) (代表: 李鍾秀)가 지난 2년간 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안전성과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전기 각도절단기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각도절단기란 목재, 플라스틱, 알루미늄 새시 등 비철금속을 원하는 각도로 절단할 때에 사용되는 공구로 국내에서는 LG산전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각도절단기는 모든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15인치(380mm)의 경우 약 52~53만원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LG산전의 제품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은 수입품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약 30억원의 각도절단기 시장에서 약 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각도절단기는 안전성면에서 전기 브레이크장치를 채택하여 작업완료시 손잡이의 원터치 버튼을 누름으로서 회전날이 무부하상태에서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주의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를 예방하게 했으며, 또한 투명 플라스틱 안전커버를 부착하여 외부로 부터 회전날에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주게 했다.

뿐만 아니라 편리성면에서도 원터치 순간잠금장치를 채택하여 절단물의 고정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하여 작업물 고정에 따른 시간적인 소모를 줄였으며, 각도 표시판과 각도 지시판을 부착하여 -57° ~ $+57^{\circ}$ 내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절단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절단이 될수 있도록 했다.

LG산전은 이번 제품의 매출목표를 전체시장의 27%에 해당되는 8억원으로 수립하고, 향후 2000년대에는 전체시장을 석권한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電力用 同芯 S-Z 케이블 개발

국내 최대의 전선업체인 LG電線(株) (代表: 權炆久)과 大韓電線(株) (代表: 兪彩濬)이 電力用 케이블인 22.9kV급 同芯 S-Z 케이블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韓國電力이 지원하고 LG전선과 대한전선이 94년 3월부터 공동 연구과제로 개발에 착수한 동심 S-Z 케이블은 1년 6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최근 상용 테스트에 합격함으로써 곧바로 상용화 할 수 있게 됐다.

同芯 S-Z 케이블은 우리나라의 배전용 케이블로 가장 많이 쓰이는 22.9kV케이블 차폐층인 中性線을 S방향(시계방향)과 Z방향(反시계 방향)으로 번갈아 꼬는 방식을 채택해 비틀림 굴곡 특성과 耐引長 특성 등 케이블의 기계적 強度를 높인 차세대 케이블이다.

기존 케이블의 경우 중성선이 단일 방향(Z방향)으로만 되어 있어 케이블이 비틀리거나 수직 또는 경사지역에 설치될 경우,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받게 돼 절연체에 손상을 주거나 진동에도 약해 적절한 차폐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전력수요의 증가와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에 따른 전력용 케이블의 설치수직 또는 굴곡 부분의 요구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동심 S-Z 케이블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LG전선과 大韓電線은 동심 S-Z 케이블이 성능테스트 통과와 함께 상용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곧바로 量產 설비를 갖추 계획이다.

現代重工業(株), 756KV급 강관철탑공장 완공

現代重工業(株)은 울산조선소내에 연산 1만2천톤의 강관철탑을 생산할 수 있는 7백56kv급 강관철탑 전용공장을 준공했다.

7백56kv철탑은 1백m(일반철탑의 4배)의 높이로 제작되며 일반철탑에 비해 6배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고기술 제품이다.

현대가 이번에 완공한 전용공장은 연면적 1천8백여평으로 주기동연결용 강파이프를 제작하는 1

공장과 주기등을 제작하는 2공장, 각종 부품을 제작하는 3공장으로 구성됐으며 대량물량을 연속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공장은 또 파이프 자동절단기, 부재·파이프 용접기를 비롯 강관구조물 가공을 위한 첨단 생산설비도 고루 갖추고 있다.

현대는 이번 공장 완공으로 중·저압에서 고압, 초고압 철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양의 철탑 생산이 가능, 시장 다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 개도국에서의 수주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大明重電機(株), ISO 9001 인증 획득

변압기·펌프·전동기 제조업체인 大明重電機(株) (代表: 朴鍾燮)는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 새해부터 본격적인 품질 경영시스템 구축과 제2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동사가 이번에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은 최근들어 WTO체제의 본격적인 개막에 따라 세계무역구조가 점차 개방화, 국제화, 자유화 추세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면서, 전 직원이 「완벽한 품질관리」와 「신기술개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인식 아래, 박종섭사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ISO 9001 인증획득에 총매진, 결심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대명중전기는 우물안식의 내수 출혈경쟁에서 과감히 탈퇴, 앞으로는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중동, 아프리카등지로 해외 수출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올해에는 3백만불의 수출고를 정하고, 전직원이 목표액 달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전설비사업에 새로 진출, 종합중전기기업체로 자리매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40여년간의 중전기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154KV 특고압변압기를 비롯 전력배전, 대형전동기, 대형펌프등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설비분야에 참여하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명중전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명중전기는 지난 75년 일단접지변압기를 국내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했으며 85년에는 고압3상유도전동기와 대형 양쪽흡입 원심펌프의 KS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高麗重電機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발전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高麗重電機工業(株)(代表: 高峯華)는 지난 1월 20일 동사에서 한국 품질 보증원으로부터 ISO 9002 인증수여 및 1,000KW 발전기에 대한 단체표준 품질인증서 수여식 및 현판식을 동시에 가졌다.

고려중전기공업(주)는 1985년 4월 1일 창립 이래 11년 동안 오직 산업용 발전기 만을 생산하여 정부유수기관 및 국내외 건설업체를 비롯하여 동남아 및 아프리카등 세계각국으로 수출 하여온 발전기 전문업체이다.

1993년도에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품질관리 “품”자 등급도 획득 하였고, 1995년에는 통산산업부로부터 영구자석 발전기(PMG) 개발완료 업체로 인정 받았다.

이제 금년부터 세계적인 WTO체제가 출범됨으로써 세계가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제 세계는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경쟁력 없이는 어떠한 기업도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부터 국제 품질보증 규격인 ISO 9002 인증과 아울러 한국전기협동조합 단체규격인증획득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22일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였고, 이어서 금년 1월 13일에는 디젤발전기 셋트 1,000KW에 대하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 품질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동사는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앞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최상의 품질과 질 좋고 값싼 제품을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